

## 2월 1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1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다우 1.04%↓ [다우: 7850.41 (-1.04%)]	뉴욕증시가 13일(현지시간) 약세로 마감. 장중 美 하원이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시장을 압박. 특히 웰스파코의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영국증시에서 로이즈뱅크 그룹이 HBOS의 손실 우려로 무려 30% 넘게 폭락한 점이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를 자극.
경기부양법안 하원 통과. 미시간대 소비자표부진	美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소집해 7,8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46표, 반대 183표로 관련법안을 승인. 공화당 의원 전원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중 7명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하원에선 민주당 의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56.2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밑돌았음.
오바마 대통령 월요일 경기부양안 서명..증시는 휴장	오바마 대통령은 월요일인 16일 부양법안에 서명할 예정. 이날은 에이브러햄 링컨과 조지 워싱턴 등 전직 美 대통령을 기리는 프레지던트 데이(대통령의 날)로, 뉴욕증시는 이날 휴장. 오바마 대통령은 주중반인 18일 모기지 대출 완화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예상.
국제유가 10% 급반등. [WTI: \$37.51 (+\$3.53)]	국제유가가 3월물 만기일을 맞아 10% 급등한 채 장을 마감. 단기급락에 따른 반발매수와 더불어 일부 숏커버링 물량, 미 하원이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한 점이 영향을 미침.
`유럽 후퇴 깊어졌다` `..EU 성장률 `사상 최악`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 이어 유럽연합(EU) 경제도 기술적인 경기후퇴(recession)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나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금리인하 압력이 더욱 고조. 13일(현지시간)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5%를 기록했다고 밝힘. 이로써 EU GDP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0.2%를 기록한대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기술적인 후퇴 국면에 접어들.
日, 25조엔 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검토	일본은 16일 발표되는 지난해 10-12월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환산 시 오일쇼크 직후인 1974년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자민당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TV 토론프로에 출연, 정부여당이 금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한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기준으로 25조 엔에 달할 것임을 시사.

제목	주요 내용
BOJ, 기업지원시 A등급 이상 채권만 매입	일본중앙은행(BOJ)이 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매입하는 채권을 A등급 이상의 채권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14일 니혼게이자신문이 보도. BOJ는 현재 공개시장 운용에서 자금공급 시 BBB- 등급 채권까지 담보로 허용해옴. 그러나 전체적인 채권 매입 시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엄격한 등급 기준을 고려 중.
中 광둥성 "기업대출 100% 보증"	중국 최대 산업기지인 광둥성 정부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성정부가 보증하는 보증전문회사를 설립했다고 15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중국의 중소기업체는 물론 중국에 진출한 홍콩과 대만 기업도 보증 대상. 기업당 보증한도는 100만 위안(약 2억 원)이며, 보증회사의 자본금은 20억 위안(약 4,000억 원).
"中 금리 높지 않다 제로금리 시행 안해"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현재 중국의 금리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며, 따라서 금리 인하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함. 또한 인민은행은 제로금리정책이나 그에 준하는 초저금리 정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이 부행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대폭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
한국토지공사 건설업계 위해 12조 7,000억 원 투자	토공은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공공 공사 발주를 늘리기로 하고, 올해 170건 4조 7,995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 공사 종류별로는 토목·건축공사 3조 9,579억 원(71건) 산업설비공사 4,303억 원(7건) 조경공사 2,321억 원(17건) 전기공사 1,068억 원(42건) 기타 725 억원(33건). 토지공사는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61%인 7조 7,000억 원을 상반기 안에 집중 집행할 예정.
임시. 일용직 700만 명 선 붕괴	16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합계는 695만 명으로 700만 명을 하회했음. 임시, 일용직 근로자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2004년 8월의 688만 명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
1월 수입물가 1.8%↓... 3개월째 하락	전월 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에는 2.3%, 10월에는 4.1%로 오름세를 지속했지만, 이후 11월 -6.6%, 12월 -5.7%, 올해 1월 -1.8%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음.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7% 상승.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7월 50.6%로 고점을 찍은 뒤 8, 9월 42.6%, 10월 47.1%에서 11월 32.0%, 12월 22.4%, 1월 16.7%로 상승폭은 점점 둔화.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